경제자료

북한 신년공동사설 경제부문 비교(2001-2005)

본 자료는 지난 5년간의 신년공동사설의 내용 중 경제부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전당·전군·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라는 제목의 올 신년공동사설에 나타난 경제부문 내용은 2004년 신년공동사설의 내용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 신년공동사설에서도 선군시대의 경제건설노선에 따라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과학기술중시, 내각의 역할 강화, 경제관리체계와 방법의 개선, 실리추구, 질 제고 등이 제시되고 있다.

다만 올 신년공동사설에서 특이한 점은 농업부문을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으로 설정하였다는 점이다. 북한은 2000년부터 선행부문(전력, 석탄, 금속, 철도부문)의 정상화를 최우선과제로 설정하여 왔다. 올 곡물생산량이 전년보다 약 3%가 증가한 423.5만톤(WFP 평가)으로 지난 10년동안 최대수확량으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농업부문을 최우선과제로 설정한 것은 신년공동사설에서 "현시기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기본고리는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데 있다"라는 표현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곡물생산의 증대가 경제회복의 일차적인 과제라는 인식에 근거한다. 2002년 7월 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 북한의 곡물가격은 모든 가격의 기준이 되고 있지만 북한의 식량부족은 곡물가격의 상승을 가져오고 이것은 다른 상품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곡물의 안정적인 공급 없이는 북한의 경제안정 및 회복은 기대할 수 없다. 2005년의 경우 북한 핵문제 등으로 대외경제여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내부적으로 식량생산을 증대시키지 않는 한 경제는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바로 올 신년공동사설에서 강조된 체제안정을 크게 저해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올 신년공동사설에서 '과학적인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가지고 사업에서 주도성, 창발성, 능동성을 발휘하여야 한다'는 것은 기업의 자율성과 시장메카니즘의 확대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연도별 사설 제목

구분	연도	내용
제목	2005	전당·전군·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2004	당의 령도밑에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 공세를 벌려 올해를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2003	위대한 선군기치 따라 공화국의 존엄과 위력을 높이 떨치자
	2002	위대한 수령님 탄생 90돐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이자
	2001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한 기세로 새세기의 진격로를 열어나가자
형식	2001 ~2005	당보, 군보, 청년보 공동사설

2. 경제구호

구분	연도	내용
구호	2005	-
	2004	경제와 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나라의 국력을 백방으로 다지자
	2003	-
	2002	경제강국 건설의 자랑찬 성과로 민족최대의 명절을 빛내이자
	2001	올해를 21세기 경제강국 건설의 새로운 진격의 해로 빛내이자

3. 전년도 경제성과

연도	전년도 경제성과
2005	▪ 지난 해는 정치사상, 반제군사, 경제과학의 3대전선에서 혁명적 공세를 벌려 강성대국 건설에서 새로운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놓은 보람찬 투쟁의 해 ▪ 당 선군정치의 위력이 힘있게 과시되고 당과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이 백방으로 강화 ▪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자랑찬 성과 - 전력공업과 철도운수를 비롯한 인민경제 중요전선들에서 최근년간에 볼 수 없었던 생산적 앙양 - 당의 종자혁명방침관철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고 대규모 토지정리와 자연흐름식 물길공사가 적극 추진되어 선군시대 농업혁명의 튼튼한 토대마련
2004	▪ 나라의 자립적 경제력이 한층 강화 ▪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위한 전망을 열어 놓았음 - 전력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에서 생산이 늘어나고 경공업의 현대화가 적극 추진 - 평양시와 평안남도, 남포시의 토지정리가 힘있게 벌어졌으며 감자농사와 두벌농사에서 훌륭한 경험이 창조
2003	▪ 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이 이룩된 전변의 해 - 라남의 봉화가 온 나라에 타번지는 속에서 새로운 경제적앙양의 돌파구가 열리고 황해남도 토지정리와 개천-태성호물길공사를 비롯한 대자연개조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 -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를 개선하고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 시행
2002	▪ 지난해는 21세기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이 타오른 장엄한 진격의 해 - 전반적 경제분야에서 생산적앙양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며 도처에 현대적 기술에 기초한 생산기지들이 건설 - 새세기 진격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거창한 투쟁속에 라남의 봉화가 타오르게 되였음
2001	▪ 지난해는 세기를 진감시킨 천리마 대고조의 북소리가 더욱 높이 울린 보람찬 투쟁의 해 - 혁명적 군인정신, 강계정신은 안변청년발전소, 청년영웅도로를 비롯한 대기념비적 창조물들을 건설 - 성강의 봉화, 낙원의 봉화는 사회주의경제를 활성화

4. 경제목표

연도	경제목표
2005	▪ 국방공업은 나라의 군사경제력의 기초 - 빈터 우에서 시작하여 간고분투의 정신으로 다져온 자위적국방공업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 - 당의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의 요구대로 국방공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선적으로 보장 ▪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켜 당 창건 60돌과 조국광복 60돌이 되는 올해에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결정적 전환을 가져와야 함
2004	▪ 국방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혁명과 건설의 제1차적인 전략적과업으로 틀어 쥐고 나가야 함 ▪ 경제과학전선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켜야 함 - 선군시대 경제와 과학기술은 군력을 핵심으로 하는 나라의 전반적 국력을 물질기술적으로 담보하고 인민들에게 남부럽지 않는 생활을 보장해 주는 현대화되고 활력있는 경제와 과학기술로 되어야 함
2003	▪ 선군의 기치밑에 공화국의 위력을 높이 떨치자면 경제문화건설에서 새로운 변혁을 이룩해야 함
2002	▪ 현시기 우리 제도 제일주의를 구현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다그쳐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추켜 세우는 것임
2001	▪ 새 시대의 요구에 맞는 강력한 국가경제력을 다져 나가야 함 - '국가경제력'은 사회주의 강성부흥의 기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21세기에 상응한 국가경제력을 다져 나가는 것보다 더 중대한 과업은 없음

5. 경제건설의 주요 과업 및 방침

연도	경제건설의 주요 과업 및 방침
2005	▪ 올해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은 농업전선 - 현시기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기본고리는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데 있음 ▪ 발전하는 현실과 나라의 실정에 맞는 우리 식의 독창적인 경제관리체계와 방법을 세우고 그 생활력이 높게 발휘되도록 함 - 사회주의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최대한의 실리를 얻을 수 있게 경제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 들어야 함 - 생산을 전문화하고 규격화, 표준화를 적극 받아들여 생산물과 건설물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자원을 효과 있게 이용하여야 함 -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나라살림살이를 깐지게 하며 노동행정사업을 짜고 들여야 함 ▪ 당의 과학기술중시방침을 틀어쥐고 현대적인 과학기술에 기초한 인민경제의 기술개건을 힘있게 다그쳐야 함 -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생산도 늘이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관점을 확고히 세워야 함 - 오늘의 선군혁명대고조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비상히 높여야 함 ▪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사업에 대한 내각의 조직집행자적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함 - 경제지도일군들은 과학적인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가지고 사업에서 주도성, 창발성, 능동성을 발휘하여야 함 ▪ 당 조직들은 경제사업을 당적으로 힘있게 밀어주면 당, 행정배합을 잘해 나가야 함

연도	경제건설의 주요 과업 및 방침
2004	▪ 선군시대의 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 ▪ 당의 과학기술중시노선을 높이 받들고 나라의 전반적 과학기술을 빠른 기간안에 세계선진수준을 올려세워야 함 - 첨단과학의 새로운 목표를 끊임없이 점령하고 기초과학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우리 실정에 맞게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 강화 - 과학기술분야에서 실력전의 된바람을 일으키며 과학자, 기술자 후비양성사업을 전망성 있게 추진 ▪ 내각의 역할을 높이고 경제관리를 개선 - 사회주의의 원칙을 지키면서 실리가 날수 있게 모든 사업을 작전하고 결패있게 내밀어야 함 ▪ 경제와 과학기술을 통일적으로 지도관리하는 사업체계를 바로 세우고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 ▪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물과 건설의 질 제고
2003	▪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자면 경제관리를 개선하고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함 - 사회주의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을 수 있게 경제를 관리운영해 나가야 함 -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선진기술을 진지하게 배우고 최첨단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 함 -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현대화의 뚜렷한 전망목표를 세우고 기술개건사업을 하나하나 착실히 해 나가야 함

연도	경제건설의 주요 과업 및 방침
2002	▪ 사회주의 경제관리완성의 기본방향은 사회주의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 - 주체적인 계획경제관리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며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를 확고히 보장하면서 아래 단위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 -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옳게 구현하며 사회적 시책을 바로 실시해 나가야 함 ▪ 우리 제도 제일주의를 구현하자면 과학기술과 교육사업발전에 전 국가적인 관심을 돌려야 함 - 우리는 공업의 기술개건과 현대화를 중요하고 절실한 부문부터 하나씩 착실하게 해 나가야 함 - 과학기술을 전반적으로 빨리 발전시키면서 특히 정보기술과 정보산업발전에 힘을 집중하여야 함 - 우리 당의 인재중시방침을 철저히 구현하여 실력있는 첨단과학기술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야 함 ▪ 격동하는 오늘의 현실은 나남의 봉화가 온 나라에 타번질 것을 요구 - 누구나 다 낡은 틀, 고정격식화된 재래식 방법에서 벗어나 모든 문제를 혁신적인 안목에서 보고 통이 크게 일판을 전개해 나가야 함
2001	▪ 현존 경제토대를 정비하고 그 위력을 최대한 높이면서 인민경제전반을 현대적 기술로 개건하기 위한 사업진행 ▪ 인민경제의 기술적 개건은 현재 경제사업의 중심고리이며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 - 모든 공장, 기업소들은 대담하게 현대적 기술로 갱신 - 최신 과학기술에 기초한 새로운 생산기지 건설 - 온 사회에 과학기술 중시 기풍조성 ▪ 경제조직사업을 해도 실리가 나게 효율적으로 추진 ▪ 새로운 환경, 새로운 분위기에 맞게 우리 식의 경제관리체계를 더욱 개선 ▪ 농업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우리 당이 제시한 종자론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사회적 기풍 조성

6. 경제부문 과제

연도	경제부문 과제
2005	▪ 올해에 농사를 잘 짓는데 모든 역량을 총집중, 총동원 - 모든 것을 농사에 복종시키며 농업부문에 필요한 노력과 설비, 물자들을 최우선적으로 무조건 보장 - 농업부문에서는 실천에서 정당성이 확증된 종자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과 콩 농사를 잘할 데 대한 방침을 비롯한 당의 농업혁명방침들을 계속 철저히 관철 - 다수확품종들을 대대적으로 심고 농촌에 비료와 농약을 원만히 보장해 주며 선진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농사일의 기계화비중을 높여야 함 - 농업지도기관들의 역할을 높여 농업생산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며 농업과학발전에 힘을 넣어야 함 - 백마 - 철산물길공사를 앞당겨 끝내며 대규모토지정리사업의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휘되게 하여야 함 -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농업부문 일군들 속에 깊이 들어가 제기된 문제들을 책임적으로 풀어주어야 함 - 농촌경리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모든 농사일을 주인답게 책임적으로 하여야 함 - 전당, 전국, 전민이 농촌을 노력적으로, 물질적으로 힘있게 지원하여야 함 ▪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이 대고조의 앞장에서 기세높이 나아가야 함 - 대규모수력발전소 건설을 다그쳐 조업기일을 앞당기고 석탄생산을 정상화하며 화력발전설비들의 능력을 높여 전력생산을 훨씬 늘여야 함 - 금속공업부문의 노동계급은 성강의 모범에 따라 주체적인 철 생산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철강재 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옴으로써 강철로 당을 옹위하고 받들어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빛내어야 함 - 철도운수부문에서는 혁명적인 사업체계를 세우고 수송조직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짜고 들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짐을 제때에 싣고 부리도록 강한 규율을 세워야 함 ▪ 경공업부문에서는 경공업공장들을 개건현대화하고 갖가지 질 좋은 인민소비품이 쏟아져 나오게 함으로써 인민생활을 높이고 온 나라가 흥성거리게 하는데 적극 이바지 하여야 함 ▪ 혁명의 수도 평양시를 더 잘 꾸리고 도시와 농촌들에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많이 건설하여야 함 ▪ 당 창건 60돌과 조국광복 60돌이 되는 올해에 선군시대를 빛내이는 기념비적 창조물들을 더 많이 일떠세워야 함

연도	경제부문 과제
2004	▪ 나라의 경제전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에 주되는 힘을 경주 - 화력발전소들의 개건보수와 대규모수력발전소 건설을 다그치며 도처에 중소형발전소를 쓸모있게 건설 - 석탄공업과 금속공업발전에 국가적인 힘을 넣어야 함 - 철도운수부문에서 군대와 같은 강한 규률을 세우고 수송조직과 지휘를 령활하게 하여야 함 ▪ 채취, 기계, 화학, 건재공업과 임업부문에서는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정상화 ▪ 경공업부문에서는 지금 있는 생산토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기술개건을 적극 추진시켜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고 그 질을 제고 ▪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기 위해서는 종자혁명을 기본고리로 틀어쥐고 감자농사혁명을 힘 있게 밀고 나가며 두벌농사를 대대적으로 발전. 그리고 콩농사와 과수업발전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함 ▪ 토지정리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으며 백마-철산물길공사를 다그침 ▪ 축산기지들과 개건 현대화된 닭공장들이 큰 은을 내게 함 ▪ 평양을 더 잘 꾸리고 도, 시, 군소재지들의 면모를 일신시키며 국토관리사업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룩
2003	▪ 국방공업을 중시하고 여기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함 ▪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에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게 하여야 함 ▪ 경공업의 현대화를 다그쳐 질 좋은 인민소비품을 대대적으로 생산 ▪ 농업부문에서는 당의 종자혁명방침, 감자농사혁명, 두벌농사방침을 철저히 구현하여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려야 함 ▪ 대규모토지정리사업을 계속 힘있게 추진 ▪ 혁명의 수도 평양을 새 세기 맛이 나게 더욱 웅장화려하게 꾸려야 함

연도	경제부문 과제
2002	▪ 자립경제의 현실적 요구와 전망에 맞게 채취공업 발전에 커다란 힘을 넣어야 함 ▪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를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으로 틀어쥐고 이 부문에서부터 경제적 앙양의 돌파구를 열어 나가야 함 ▪ 농업부문에서는 이미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이 남김없이 확증된 우리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야 함 ▪ 황해남도의 토지정리와 개천-태성호 물길공사를 최상의 수준에서 질적으로 끝내야 함 ▪ 모든 분야에서 인민적인 것, 대중적인 것을 우선시하고 인민생활과 관련된 문제들을 제1차적인 과업으로 풀어나가야 함 - 올해 우리는 새로 꾸려진 현대적인 생산기지들의 위력을 적극 발양시켜 인민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여야 함 -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고 도시와 농촌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사회주의 선경으로 꾸려나가야 함
2001	▪ 올해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가장 중요한 전선은 전력공업, 석탄공업, 금속공업, 철도운수임 - 대규모수력발전소 건설에 힘있게 다그치고 전력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석탄생산을 최대한으로 늘려 나감 - 금속공장들의 설비현대화로 철강재생산에서 혁신 - 철도운수를 정비보강하여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보장 ▪ 경공업부문에서는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1차 식품소비품과 기초식품 증산 ▪ 농업생산을 늘이는 것은 올해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결정적 고리 - 종자혁명, 감자농사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 나가며 두벌농사 면적의 적극 확대 - 메기를 비롯한 생산성 높은 물고기 사육 - 현대적인 축산기지 설치 - 황해남도 토지정리사업, 개천-태성호 물길공사 등 대자연 개조사업의 독려 ▪ 사회적 시책으로 휴양소, 정양소, 병원들을 비롯한 문화후생 및 보건시설들과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더 많이 건설